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고품격 명품아파트의 기준! 승원팰리체
FELICE
www.승원건설그룹.com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347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9월 5일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숲배추? 배추농민들 속은 시커멓게 탑니다”

르포 - 해남 배추 농가 가 보니

폭염·폭우 이상기후에
배추 뿌리 못내리고 썩어
생산비 못 건지고 포기할 판
유통과정에 배추값 뛰고
중국산까지 수입 ‘한숨’

“배춧값이 2만원을 넘어가니 남들은 ‘떼부자 됐겠다’고 하지만 속모르는 소리고 오히려 농사가 망할 판이여.”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5일 찾은 해남군 황산면의 배추밭에는 군데군데 붉은 흙이 드러나 있었다. 일부 배추는 밑동까지 썩어들어가고 있었다.

평소 이맘때면 생육의 절반 이상 진행된 푸른색 가을배추가 이랑이 안보일 정도로 자라지만, 올해는 이상기후로 배추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해남 배추는 수확철이면 장비를 이용해 뿌리를 잘라내야 할 정도로 단단한 품질을 자랑한다. 그런데 건드리기만 해도 뿌리가 뽑혀 나갈 정도로 썩어서 상품성이 없는 상태였다.

해남군 황산면에서 29년째 배추농사를 짓고 있는 임두만(52)씨는 바람이 부는 날이면 밭에 나가 하루종일 배추를 살피고 있다. 가벼운 바람에도 생육이 좌우될 정도로 위태롭기 때문이다.

임씨는 “9월초 모종을 옮겨심은 사람은 좀 낫지만, 나 같이 비오기 직전인 9월 말께 배추를 심은 농민은 피해가 크다”며 “어린 배추가 착근되지 않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휘청이다 뿌리째 뽑혀 나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달 21일 하루 동안 해남에 쏟아진 298㎜ 폭우는 재앙이 됐다.

배추밭이 폭우에 쓸려간데 이어 무름병이 도졌고, 일부 배추는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배추가격 안정화를 위해 배추 수입을 늘리겠다고 발표해 농민들은 가을·겨울 배추를 출하해도 제값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해남은 전국 배추 재배 면적의 25.7%를 차지한다. 전국 가을 배추의 15%, 겨울 배추의 63%를 해남배추 농가가 공급하고 있다.

해남 농민들은 “정작 농민은 생산비 보전도 어려워 허덕이는데 수입산 배추가 들어와 가격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김장 배추가격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기에 실망감이 더욱 큰 분위기다.

올해 이상기후 탓에 배추모종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데다 생산비도 올라 오히려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무진 해남군농민회장은 “올해 기름, 거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데다 특히 폭염 때문에 모종이 쉽게 죽으면서 169구짜리 모판 가격이 7000원대에서 2만원대까지 크게 올랐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가격까지 폭락하면 생산비를 건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농사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남지역 배추 농가는 “국내산 배추만으로도 김장 배추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배추 주산지인 강원도와 해남 외에도 전북 고창, 충남 계룡 등 중부지역에서도 최근 배추 농사를 짓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지난 2022년 기록적 폭우로 인해 여름 고랭지 배추 공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대량 수입했지만, 정작 해남 가을 배추가 가격 경쟁에서 밀려 판로를 잃었다는 것이다.

해남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2022년 당시 해남에서는 팔지 못한 가을 배추가 넘쳐나 발체 채였을 정도”라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농민들은 “배춧값이 올랐다지만 농민들이 공판장에 넘길 땐 1포기에 1300원 받으면 잘 받았다고 한다”면서 “어떻게 소매 가격이 2만원대로 오를 수 있나. 무작정 공급을 늘리기 전에 중간 유통 과정을 살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 중국산 배추 초도물량 16t을 긴급 수입하고, 10월 한달 동안 매주 200t씩 총 1100t을 수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수입업자를 통해서도 배추 3000t을 추가로 들여온다.

/해남=글·사진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난 5일 해남군 황산면에서 농민 임두만씨가 폭우 등 이상 기후 피해가 발생한 배추밭을 둘러보고 있다. 임씨는 “이맘 때면 이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배추가 자라야 하지만 생육이 더디기만 하다”고 말했다.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 휴학 승인

교육부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내년에도 복귀 안 하면 유급·제적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8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다만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에는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시한을 설정하고, 그때까지 돌아오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급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만약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휴학원 정정 시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이 승인된다.

의과대학 학사정상화 비상 대책안

- 2025학년도 복귀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허용 (동맹휴학 불허 방침 유지, 미복귀 학생 유급·제적)
- 복귀 학생 학사 적응·의료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권고
- 2025학년도 신입생 수강 신청·분반 우선권 부여 및 집단행동 강요 등에 보호 방안 마련
- 대학본부·의과대학 협력 고충 상담 및 학습지원자료(속칭 '족보') 공유·지원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 운영
-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 위해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 마련. 6년→5년 단축 검토
-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추진

연합뉴스 자료: 교육부

의대생 ‘동맹휴학’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예컨대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 효천하수처리장 수상한 입찰 ▶6면
KIA 한국시리즈 모드 전환 본격 훈련 ▶18면
호남의 누정 원림 - 나주 쌍계정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청년이 꿈꾸는 전남
청년이 만드는 전남
전라남도청년센터
전라남도청년센터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전라남도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지원사업 운영, 청년 활동공간 제공,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정보 제공 등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 전라남도청년센터 주요사업
청년 공동체 육성
· 호남 청년 아카데미
· 인생전환기 청년 네트워크 활동 지원 사업
청년 삶의 질 증진
· 오늘도 맑음 심리상담 프로그램
· 찾아가는 마음돌봄 심리상담 프로그램
· 2024년 전라남도 청년의 날
청년정책 홍보
· 온라인 채널 운영
·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시·군 청년센터 지원
· 시·군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전라남도내 시·군 청년센터 탐방지도
영광군 청년센터
무안군 청년센터
곡성군 청년센터
구례군 청년센터
전라남도청년센터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
광양청년꿈터
순천시 청년센터 '꿈꾸는 청춘'
무안군 청년플랫폼
나주시 청년센터 '청년가온마당'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영암군 청년센터 '달빛청춘마루'
보성군 청년센터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강진청년지원센터
고흥청춘누리
진도군 청년센터
해남청년두드림센터
완도 청년센터 '완생'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061-288-3880,4~8
jnyouthcenter@naver.com